

한국과 중국 패션 전문 교육 현황 연구

임 순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urrent Condition of Fashion Education in Korea and China

Soon Im

Professor, Dept. of Fashion Industr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4. 3. 25, 심사(수정)일: 2014. 4. 21, 게재 확정일: 2014. 8. 22)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current conditions of fashion education organizations in Korea and *Chin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s for the departments related to fashion in *Korea*, the department of clothing was most frequently found in the fields of everyday science and natural science and design was most frequent in art related fields. 2. As for the departments related to fashion in *China*, the department of design was usually found in the fields of spinning and weaving, art, fashion, and others, and a college was dedicated to is having departments related to the fashion industry, much larger in scale compare to *Korea*. 3. Subject analysis found that both *Korea* and *China* put the most weight on the subject of design than any other fields. 4. Subject analysis of the fashion related departments in *Korea* found that all three department groups put considerable weight on clothing design and clothing composition subjects with other subjects having greater parts in the curriculum. 5. As for the departments related to fashion in *China*, design-related subjects were most frequently found, irrespective of the title of the fashion department, and the subjects concerning fashion marketing were widely distributed. 6. It seems that the curriculum for fashion colleges in *China* have been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before absorptive integration and setting based on the loc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ge. 7. For the curriculum of *Korea*,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ones and to develop practical subjects in association with experts in actual fields. *China*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e local characteristics due to its global curriculum and large area.

Key words: current condition of fashion industry in *Korea* and *China* (한중패션현황)
curriculum (교과과정), fashion education in *China* (중국패션교육),
fashion education in *Korea* (한국패션교육)

I. 서론

21세기도 벌써 10년이 흘러갔다. 세기말에 예측한 많은 변화에 대한 추이는 보다 빠르게 이행되고 있으며 패션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응력을 갖춘 기업들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패션비즈니스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패션업계에서 요구되는 인재 양성의 방향에 따라 교육 방향도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패션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패션브랜드의 경우, '2012/2013 한국패션브랜드연감'에 의하면 1916개의 업체가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¹⁾ 이는 2008년 2058개, 2010년 1862개로 2010년에 비해 2.9% 상승한 수치인 것으로 알 수 있다.

국내 시장의 변화 중 주목할 점은 ZARA, GAP, UNICLO, H&M 등의 글로벌 패스트 패션브랜드들의 국내 판매활동, 국내 브랜드인 르샵, 플라스틱 아일랜드, 로앤 등 글로벌 소싱시스템을 구축한 중저가 여성복 브랜드들의 가담과 파파야의 가세 등으로 국내 패스트 패션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고, 세계 패션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패션산업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한국과 인접 국가이며, 거대한 소비시장인 중국의 현황은 국내 내수 활성화로 내수기업들이 성장을 계속하겠지만 시차를 두고 한국과 유사한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1994년 중국의 섬유외류 수출액이 전 세계 섬유의류업의 13.2% 차지하여 세계에서 섬유부분의 수출이 제일 많은 국가가 되고, 1997년에 사유재산제 인정과 함께 의류업체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이 생겨남으로써 다양한 의류시장을 형성하며 변모하기 시작했다. 주변 국가의 인건비 상승으로 국외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중국 내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섬유 및 의류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유럽과 미주로 우수한 수출 가공 업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패션산업은 1997년 '명사명품 프로젝트'를 통해 패션디자이너의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자국 브랜

드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1년에는 WTO에 가입하면서 국제경쟁에 정식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²⁾

이처럼 생산 위주의 중국 패션산업은 자국의 패션 브랜드에 주력하면서 생산을 넘어서는 단계에 서 있으며, 유통 및 판매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 모두 급변하는 국내의 시장변화에 맞춰 상품력을 갖춘 디자인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함께 시장 수요에 상응하는 패션인력 양성이 중요한 시점이며, 중국은 한국의 제 1수출국이지만 앞으로 중국의 생산기지로 뿐만 아니라 한국을 위협하는 패션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이 있어, 현재 한국과 중국의 패션교육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교과과정을 확인하여 시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패션교육기관 관련의 1990년대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해영³⁾의 연구에서는 의류관련학과 명칭이 의류학과, 의상학과, 의류직물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의생활학과 순으로 나타났고, 교과과정의 경우 의복구성설계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라 전체 교과과정의 흐름을 알 수는 없었다.

김소현⁴⁾ 연구에서는 교과과정이 학문의 틀 속에 갇혀 있어 효율적인 교육이 어렵고, 연구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며, 기존의 패션디자이너 양성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1990년대에 디자인 위주의 교과과정이 지배적이었음을 보여주며, 산업체와의 협조보다 연구 중심으로 설계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구양숙 외⁵⁾의 연구에서는 전공/학과 명칭이 패션, 산업 등 산업과 연계한 학과 성격으로 조정을 보여주지만, 명칭과 상관없이 교과과정은 디자인 및 제품 생산의 교과과정의 비중이 크고, 산업 및 시장정보 관련 교과목 비중이 낮다고 하였다.

김효은⁶⁾의 연구는 전문대학 패션디자인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패션디자인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요 전공과목 인지도를 조사하였는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의복구성분야, 복식디자인 분야는 차이 없이 개설되고 있으나, 이론과목과 피복과학은 4년제

대학이, 현장 실습 분야는 전문대학이 많이 개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년대 이호정⁷⁾의 연구에서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경우 공통적으로 패션디자인학도가 50.0% 이상, 패션마케팅학도가 12.0% 정도로 지역특성화를 고려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문대의 경우 패션 분야의 모집학과 수 및 정원수와 유사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뷰티/미용관련 학과를 주목했는데, 4년제 대학교의 경우는 모집 정원수에 10.0% 정도이지만,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수임 외⁸⁾의 연구에서 패션 관련 학과의 명칭이 생활과학계열과 예술계열을 중심으로 디자인 용어가 포함된 명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소속 대학에 따라 전공 명칭이 차별화되고, 교과과정도 다소 차별화되었으나 교육목표에 따른 인재육성이 부족하며 차별화되지 못하고 취업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나영주 외⁹⁾의 공동연구 발표에서는, 피복과학 분야, 의복구성분야, 복식사/박물관 분야, 디자인 분야, 패션마케팅 분야로 나누어 인재상을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과별로 차별화된 소양을 요구하는데, 이를 위하여 전문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다른 의류학 분야와의 융합, 적용을 전제로 한 교과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의 특성에 따라 교과과정을 수립할 때 현장 적용이 목적인 과목과 이론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조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김은애 외¹⁰⁾의 패션산업 인력 배출 현황 조사사업에서는 의류패션 관련학도가 자연계열을 바탕으로 (48.5%) 전개되고 있으며, 교과과정에서 디자인 분야(31.5%), 의복구성(20.4%), 마케팅(16.2%), 섬유과학(15.0%), 복식사(5.7%) 등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1999년대 교과과정 분석 시 패션마케팅, 패턴 쪽의 보완된 교육을 요구하였는데 현재 교과목 편제는 세분화, 다양화된 의류패션 산업 영역과 업무에 접근하려는 관련학과의 노력을 반영하였고, 전문대학의 경우는 디자인(33.3%), 의복구성(36.7%), 마케팅(10.0%) 등 4년제 대학과의 차별화를 위해 기능적 실무영역

에 더 집중하여 의류패턴제작, 남녀 의복구성 등의 다양한 교과과정을 전개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국의 패션교육기관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2010대까지 꾸준히 이어 왔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조사 연구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중국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은 동성천¹¹⁾의 중국 국공립대학 복장계열 학과의 현황 연구와 여월¹²⁾의 중국의 패션산업 및 교육 현황 연구 정도로 현재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성천의 연구의 경우 복식학계열 일부 대학의 교과과정을 정리하였고, 여월의 연구의 경우는 패션교육을 연구하였으나 대표적인 교육기관을 소개했을 뿐 교과과정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중국 패션산업에 중요도에 비해 관련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분석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 패션 관련 대학 교과과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글로벌 패션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패션 전문 인재양성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과 중국 패션교육에 관한 선행된 연구 조사를 한다.
- 둘째, 한국 패션 관련 대학의 현황 및 교과과정을 조사 분석한다.
- 셋째, 중국 패션 관련 대학의 현황 및 교과과정을 조사 분석한다.
- 넷째, 패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방안을 제시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패션 관련 대학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 통계사이트(<http://kess.kedi.re.kr>)에서 제공하는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교육통계'에서 '2013, 대학통계' 검색 결과에서 '주제별' 통계 중 '학교', '학생', '학과' 자료를 기반으로 검색 정리하였으며, 방송대학, 사이버대학은 제외한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대학' 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패션 관련 대학의 교과목 현황 분석을 위해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패션, 의류, 의상'으로 검색한 결과, 4년제 대학 중 동일한 학과명, 설립 구분 중복 등 중복 사항들을 제거한 후, 홈페이지에서 교과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학교와 패션뷰티, 주얼리 패션디자인, 무대패션 전공 등 특수학과를 제외한 총 66개 대학 72개 전공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교과목의 세부전공 분류의 경우는 선행연구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의류섬유과학, 의복구성 및 설계,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 패션마케팅, 복식문화사,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중국 패션 관련 대학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중국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검색사이트는 <http://www.chsi.com.cn>에서 제공하는 '중국 고등 교육 학생 정보 사이트'¹³⁾를 통해 '전국보통고등교육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전국 전체 대학 중 '복장'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중국 패션 관련 대학의 경우 대학의 종류를 이공농대학, 종합대학, 예술대학, 재정대학, 사범대학, 민족대학의 지역별 패션학과 수를 정리하였고, 교과과정 분석은 4년제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으며, 교과목 분류는 한국 패션교육 기관 분석과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한국 패션 관련 대학의 현황

해방 당시 29개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대학은 경제 성장과 함께 고등교육에 대한 진학 욕구가 증대되면서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1996년부터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2000년까지 대학 수가 45개 증가하는 등 대학 설립이 폭증하였으나, 2000년 전후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신입생 미달 우려가 제기되면서 2005년 361개를 정점으로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대학 수는 더 이

상 증가하지 않았고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 교육대학이 개편 또는 전환 등으로 4년제 일반 대학 수가 증가했으나, 2005년 360개를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으나 2012년에는 343개로 줄었다.¹⁴⁾

교육통계서비스 검색을 기준으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2013년 기준) 전문대학 140개, 4년제 대학 188개, 교육대학 10개, 산업대학 2개로 총 340개 대학이 존재하며, 이들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2,971,895명이었다.

이 중 패션 관련 학과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대학에 존재하였으며, 그 수는 203개로 확인되었다. 이들 학과의 재적생(휴학생 포함)의 수는 총 26,360명이다.(전체 대학 재적생 중 8.8%비율)¹⁵⁾

이는 2005년 패션 전문 교육기관으로 4년제 대학이 92개, 전문대학이 79개였던 이호정¹⁶⁾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4년제 대학은 116개, 전문대학은 81개로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학생 수 29,000명에서 26,360명으로 재학생 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패션 관련 대학의 학과 및 교과과정

1) 소속 계열 및 명칭

본 연구에서는 패션 관련 학과의 소속 계열을 생활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술계열, 기타융합계열로 분류하였다. 생활과학계열은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로 17개 대학이 속해있고 생활환경대학은 1개 대학이 있다. 자연과학계열의 자연과학대학, 이과대학에 소속되어 있고 자연과학대학은 9개 학과이고 이과대학은 1개 대학이 있다. 인문사회계열은 인문사회 과학대학, 문화창조융합 계열로 2개 대학이 있다. 예술계열이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조형환경학부, 건축디자인 대학에 속해 있으며 다양한 단과대학이나 학부명을 가지고 있고 31개 대학으로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다. 그 외에 기타융합계열로 생활과학예술, 인문예술, 문화예술 등으로 예술분야와 타 분야와의 복합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과 같이, 본 연구와 나수임¹⁷⁾의 연구에서 한

국 패션 관련 학과의 계열에 따른 비율과 비교하면 생활과학계열은 31.0%에서 25.0%로, 자연과학계열은 18.0%에서 13.9%로, 인문사회계열은 4.6%에서 2.8%로 생활과학계열은 6.0%, 자연과학계열은 4.1%로 감소되었고, 예술계열은 41.5%에서 43.0%로, 기타융합계열은 6.1%에서 15.3%로 예술계열은 1.5%, 기타융합계열은 9.2% 증가하였다. 기타융합계열의 증가는 현재 많은 대학들의 학과별 통폐합을 통한 단과대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계열에 따른 학과명을 비교했을 경우, 생활과학계열은 의류, 의류환경학, 의류디자인, 패션디자인, 의상

학과로, 자연과학계열은 의류, 의류상품, 패션의류, 패션산업, 의류산업, 의상이 있었고, 인문사회계열은 패션디자인, 의류패션이 있었다. 예술계열의 경우는 의류, 의류패션산업, 패션디자인, 의상디자인, 의류디자인, 패션디자인산업, 패션학과가 있었고, 기타융합계열은 의류, 의류패션, 패션디자인, 의상디자인, 패션마케팅, 섬유패션디자인, 패션산업, 패션산업디자인 학과로 학과명은 계열과 크게 상관없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계열별로 가장 많은 학과명을 보면 생활과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은 의류학과가 가장 많았고, 예술계열, 기타융합계열은 디자인학과 명이 가장 많았다.

<표 1> 한국 패션 관련 대학의 소속 계열 및 명칭

n(%)

계열	단과대학 및 학부명	학과명	대학교명	학교 수
생활과학계열	(자연)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과(전공)	가톨릭대, 경북대, 서울대, 성신여대, 수원대, 숙명여대, 안동대, 울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한양대	12
		의류환경학과	연세대	1
		의류디자인학과	인하대	1
		패션디자인학과	동의대	1
		의상학전공	경희대(의상학과)	1
	패션디자인·산업학과	원광대	1	
	생활환경대학	의류학과	부산대	1
계				18(25.0)
자연과학계열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경상대(생활과학부), 군산대, 상명대 서울캠, 서울여대, 제주대	5
		의류상품학과	공주대	1
		패션의류학과	경남대	1
		패션산업학과	인천대	1
	의류산업학과	한경대	1	
	이과대학	의상학과	경성대	1
계				10(13.9)
인문사회계열	인문사회과학대학	패션디자인학과	부경대	1
	김소월 대학 (문화창조융합 계열)	의류패션학과	배재대	1
계				2(2.8)
예술계열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학과	건국대 충주캠(패션디자인학부), 대구 가톨릭대, 동덕여대, 상명대 천안캠	4
		패션디자인산업전공	신라대(패션산업학부)	1
	건축디자인 대학	패션디자인학과	동명대	1

	건축디자인패션대학	패션디자인학과	동아대	1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국민대	1
	조형환경학부	의류학과	서원대	1
	예술대학	패션디자인학과(전공)	가천대(미술디자인학부), 중앙대(디자인학부), 청주대, 한성대	4
		의상디자인전공	덕성여대, 한서대(예술학부), 호남대	3
		의류패션산업전공	한성대	1
	예술디자인대학	의류(의상)디자인학과	건국대, 경희대	2
	조형예술대학	패션디자인학과(전공)	대구대, 이화여대	2
		의류학과(전공)	이화여대, 한남대	2
	예체능계열 예체능대학,	패션디자인학과(전공)	강릉원주대, 경일대(디자인학부), 대구예술대, 명지대, 세명대, 중부대, 호원대	7
		패션전공	호서대(디자인학부)	1
계				31(43.0)
기타융합 계열	과학기술대학	섬유패션디자인학부	경북대상주캠(패션디자인전공)	1
	공연디자인대학	패션산업디자인학과	단국대 죽전캠	1
	문화예술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광주대	1
	문화관광대학	패션산업학과	진주대	1
	문화사회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우석대	1
	문화산업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영산대	1
	섬유패션학부	의류패션전공	영남대	1
	생활과학 예술체육대학	의류학과	목포대	1
	인문예술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순천대	1
	패션대학	패션디자인과	계명대	2
패션마케팅학과				
계				11(15.3)
총계				72 (100)

2) 계열별 교과과정 분석

계열별 교과과정을 분석한 <그림 2>의 결과를 보면, 생활과학계열의 경우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 과목이 31.2%,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23.4%, 패션마케팅과목이 19.1% 순으로 되어있으며, 자연과학계열의 경우 디자인과목이 31.3%,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20.7%, 패션마케팅과목이 20.0% 순으로 되어있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디자인과목이 39.9%,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20.8%, 기타과목이 13.9% 순으로, 예술계열의 경우 디자인과목이 41.2%,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20.6%, 패션마케팅과목이 14.8% 순으로, 기타융합계의 경우 디자인과목이 38.7%, 패션마케팅

과목이 18.2%, 기타과목이 15.3% 순으로 나타났다.

패션 관련 대학의 교과과정은 계열에 따라 다른 비중으로 교과목을 편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생활과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의 경우 디자인과목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디자인 과목과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의 비중차이가 7.8%, 10.6%로 많이 나지 않는데 비해, 인문사회계열과 예술계열, 기타융합계열의 경우는 디자인과목의 비중이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과 비교할 때 19.1%~23.5% 차이가 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차이를 보면, 모든 계열에서 디자인과목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생활과학계열은 기타과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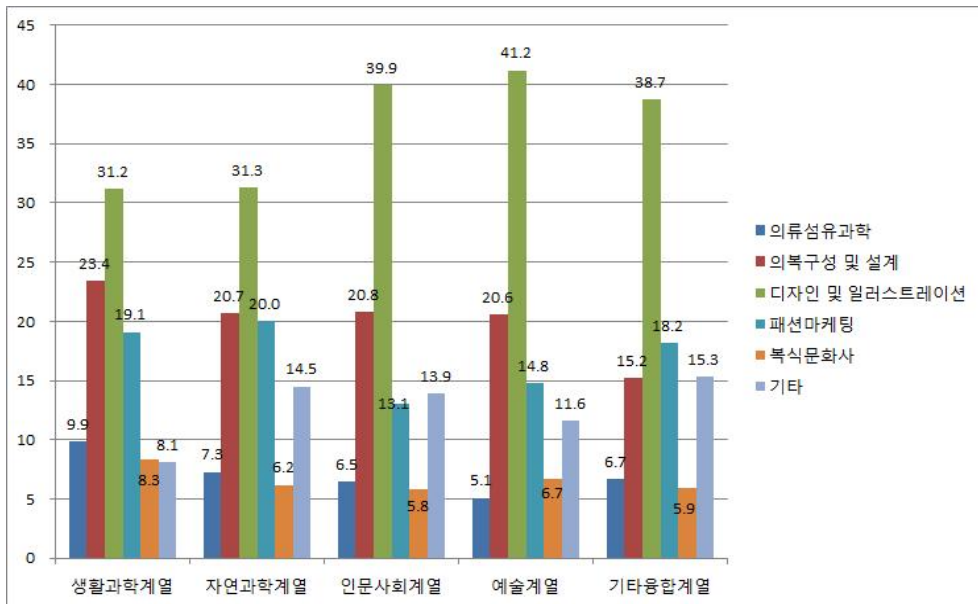
자연과학계열, 인문사회계열, 기타융합계열의 경우는 복식문화사과목이, 예술계열은 의류섬유과학과목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계열별 과목의 특징을 보면 생활과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은 의류섬유과학과목이 9.9%, 7.3%로 기타융합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예술계열에서 6.7%, 6.5%, 5.1%가 나온 것에 비해 교과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의 경우는 기타융합계열에서는 15.2%의 비율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생활과학계열은 23.4%, 자연과학계열은 20.7%, 인문사회계열 20.8%, 예술계열은 20.6%로 비슷한 비율로 교과과정이 설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 과목의 경우는 계열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생활과학계열은 31.2%, 자연과학계열은 31.3%, 인문사회계열은 39.9%, 예술계열은 41.2%, 기타융합계열은 38.7%로 생활과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에 비해 다른 계열들이 디자인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패션마케팅 과목의 경우도 계열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생활과학계열은 19.1%, 자연과학계열은 20.0%, 기타융합계열은 18.2%로 인문사회계열 13.1%, 예술계열 14.8%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복식문화사는 생활과학계열에서 8.3%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과목은 기타융합계열에서 15.3%로 가장 높고 생활과학계열에서 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8년도 2014년도를 비교하면 의복구성 및 설계, 디자인, 마케팅 분야의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문사회계열, 예술계열, 기타융합계열은 디자인 분야의 교과목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의류섬유과학이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 학과 군 별 교과과정 분석

학과 군으로 나누어 교과목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나수임¹⁸⁾의 연구에서 65개 전공을 분석한 결과 의류학과군이 24개(36.9%), 패션디자인학과군이 34개(52.3%), 패션산업학과군이 7개(10.8%)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72개 전공을 분석한 결과 의류학과군 25개(34.7%), 패션디자인학과군 39개(54.2%), 패션산업학과군 8개(11.1%)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3>과 같이 의류학과군은 의상디자이너가 27.8%에서 30.5%로, 의복구성성이 24.3%에서 22.7%로, 마케팅이 17.9%에서 18.9% 순으로, 패션디자인학과군은 의상디자이너



<그림 2> 2014년 한국 패션 관련 학과의 계열별 교과목 현황

이 40.3%에서 42.1%로, 의복구성이 21.3%에서 19.5%로, 마케팅이 13.9%에서 14.6%의 순으로, 패션산업학과군은 의상디자인이 25.5%에서 31.7%로, 마케팅이 25.5%에서 23.1%로, 의복구성이 16.9%에서 18.1% 순으로 비중이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순서로 나타났다. 분류된 3개의 학과 군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의상디자인과 의복구성의 과목에 대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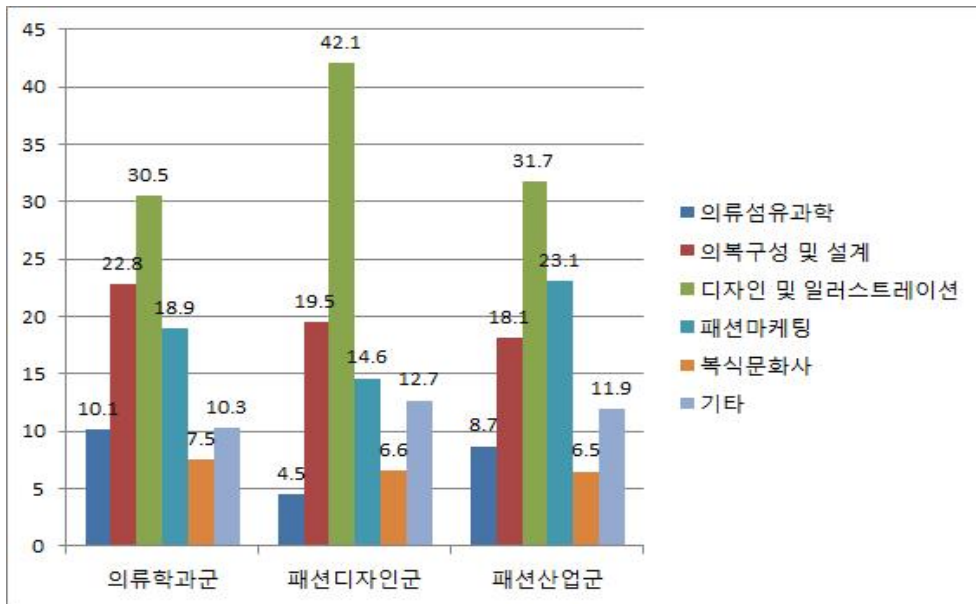
나수임¹⁹⁾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기타과목의 교과 구성 증가였다. 의류학과군은 4.2%에서 10.3%로, 패션디자인학과군은 4.4%에서 12.7%로, 패션산업학과군은 5.9%에서 11.9%로 모든 학과 군에서 기타과목의 교과과정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많은 대학들이 대학 평가의 기준이 되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교육 실습과목들의 편성을 많이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 실무 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 설계과목 편성도 기타과목 구성 증가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나수임의 연구에서 의상디자인, 의복구성, 마케팅, 복식문화 등 과목 경계가 확실했던 것과 달리, 학과 군에

따른 특징은 유지하지만, 일정 교과목의 단편적인 교육이 아닌 실무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과 산학협력의 중요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중국 패션 관련 대학의 현황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당시의 대학은 소련과 동구 제국의 대학교육의 경험을 배우고, 중국의 국세를 바탕으로 종합대학 (주로 문리계), 이공과대학 (주로 공학계), 사범대학, 농림대학, 체육대학, 의약대학, 외국어대학, 정치법률, 재세경제대학, 예술대학, 민족대학 등 함께 10종류로 분류되었다. 그중에서 종합대학을 제외하고 이공과대학의 대부분과 그 외 8종류의 대학은 모두 단과대학이며, 종합대학은 일반적으로 대학이라고 칭하지만 단과대학은 학원이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국·공립대학 4년제(의학부 5년제)이고, 단대는 2-4년제이지만 주로 3년제가 대부분이다.

피복학은 역사, 미술, 과학, 공학, 경영학 외에도 폭 넓은 학문을 필요로 하지만 예술계 대학은 복장디자인을 직업사범대학은 직업적 기능의 육성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 외 대학은 균형있게 교육하고 있다.



<그림 3> 2014년 한국 패션 관련 학과의 학과 군 별 교과목 현황

1988년경에는 중국방직대학, 중국복장학원, 천진방직공학원, 서북방직공학원, 무한방직공학원, 산둥방직공학원 등 대학 명칭에 방직 및 복장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지만, 1992년 이후 대학을 조정 합병하고, 학과의 개혁에 의해 대학명과 학부명도 변경되었다. 중국방직대학은 동화대학, 천진방직공학원은 천진공학대학, 무한방직공학원은 무한과학기술대학이라고 변경하고 산둥방직공학원은 청도대학으로 흡수-합병

되었다. 현재 방직 및 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북경복장학원 밖에 남아있지 않다.²⁰⁾

4. 중국 패션 관련 대학의 학과 및 교과과정

1) 패션 관련 대학의 현황조사 분석

패션계열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표 2>와 같이 종합대학 107개교(본과 34개교, 전과 73개교), 이공농

<표 2> 중국 패션계열 전국 학교 수

지역명	이공농대학		종합대학		예술대학		재정대학		사범대학		민족대학	
	본과	전과	본과	전과	본과	전과	본과	전과	본과	전과	본과	전과
북경	1		1					1			1	
상해	3			2		1						
강소	2	14	10		1	2		2	1			
절강	4	2		9			1		1			
북건		2		9				2	1			
하북	2	1	1	2	1			2	1			
산서	1	1		1								
료녕	3			3	1	2	1		2			
길림	3		2		2		1		1			
흑룡강	1	1		2		1						
강서	1			3	1	1	1					
산둥	5	6	4	12				2				
호남	3	1	1	6		2			2			
광둥	2	7	5	11	1	1		2				
광서	1	4	1	4		2		2	1			
해남		1		1				1				
중경	2	4	2	4				1	2			
사천		3	1	3	1	2			4	1	1	
신강		2	1	1								
천진	2					1						
하남						1		2	2			
호북						1						
내몽골								1				
안위								1	1	1		
사서							1					
귀주												
학교수	37	49	34	73	8	17	5	19	19	2	2	
합계	86		107		25		24		21		2	

대학 86개교(본과 37개교, 전과 49개교), 예술대학 25개교(본과 8개교, 전과 17개교), 재정대학 24개교(본과 5개교, 전과 19개교), 사범대학 21개교(본과19개교, 전과 2개교), 민족대학 2개교(본과 2개교)이다. 이들 대학 중에 복장학 또는 섬유공학 관련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12개 학교이다.

이공농대학에서 대표적인 북경 소재 북경복장학원, 상해의 동화대학을 들 수 있다. 중국 전 지역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본과, 전과(4년제 대학은 본과, 2-3년제 대학을 전과로 중국에서는 칭한다.)를 합하여 총 112개가 있다. 의류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강소성, 산둥성에 학교 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종합대학 총 107개교 중 본과 34개교, 전과 73개교가 있다. 북경의 칭화대학을 중심으로 강소성에는 본과가 10개 대학이 있을 정도로 종합대학 내에도 복장학부의 신설이 이루어졌고, 산둥성과 광둥성에는 본과에는 없지만 전과에는 10개가 넘는 대학이 있다. 예술대학은 25개교로써 본과 8개교, 전과 17개교가 있다. 다른 이공농대학, 종합대학과 달리 그 수는 매우 적다. 대표적으로 길림성 본과 대학에 연변대학과 동북전력대학이 있다. 재정대학 24개교 본과 5개교, 전과 19개교가 있다. 본과 보다는 전과에 속한 대학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사범대학은 21개교로 본과 19개교, 전과 2개교가 있다. 전과는 마안산 사범고등전과학원과 사천 유아사범고등전과가 있다.

2) 소속 계열 및 명칭

경화학공정과, 패키지공정과와 소재순환과학공정과, 부직포소재공정 등 패션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제외하고, 총 77개 대학을 분석하였다. (한 개의 대학에서 패션 관련 전공이 여러 개인 곳은 교과목을 전공별로 분석하여, 총 120개 전공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계열 분류는 경공업계열, 예술계열, 방직계열, 패션계열, 기타계열로 나누었으며, <표 3>과 같이 경공업계열은 2.4%, 예술계열은 29.6%, 방직계열은 19.2%, 패션계열은 37.6%, 기타계열은 11.2%로 분석되었으며, 패션계열이 37.6%로 가장 많은 비율로, 경공업계열이 2.4%로 가장 적은 비율로 확인되었다.

경공업계열은 경공학원, 경화학공업과 예술학원이 있었으며, 학과명은 패션디자인과, 패션공학학과가 있었다.

방직계열은 방직과 예술디자인학원, 방직과 의류공정대학원, 방직의류학원, 패션방직공학학원 내에 패션디자인 경영과, 패션디자인공정과, 방직품 예술디자인과, 패션디자인표현과, 패션예술디자인과, 패션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과 제작, 패션패턴 공예, 패션표현과가 있었다. 학과명에 '디자인' 명칭이 자주 사용되었다.

예술계열은 공예미술학원, 디자인학원, 미술디자인학원, 미술예술학원, 미술학원, 상업미술학원, 예술공학학원, 예술디자인학원, 예술미술디자인학원, 예술학원 내에 패션디자인과, 디자인공정과, 패션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공정과, 예술디자인과, 직물염색예술패션과, 패션공예기술과, 패션디자인공예과, 의류 및 패션디자인과가 있었다. 학과명은 패션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공정과 등 '디자인'명칭이 주류를 이루고, 예술디자인, 직물염색예술디자인, 패션공예예술과 등 '예술', '공예'의 명칭도 사용되었다.

패션계열은 예술과 패션학원, 패션공학학원, 패션디자인학원, 패션미술디자인학과, 패션예술과공정학원, 패션예술디자인학원, 패션예술학원, 패션학원 내에 패션디자인공정과, 패션표현과 기획, 패션디자인학과, 니트패션디자인과, 패션디자인마케팅과, 패션디자인예술디자인과, 패션디자인패턴제작과, 방직품예술디자인전공, 글로벌 패션경영전공, 패션공정관리과, 패션디자인경영과, 패션디자인공정과, 염색방직과, 패션교육과, 패션무역과 경영과, 예술디자인전공, 패션CAD/CAM, 패션시장경영과 등이 있었다. 패션계열의 경우, 학과 명칭은 '디자인' 명칭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편직물', '니트', '방직품', '경영', '패턴', 'CAD/CAM', '교육', '무역' 등 명칭이 매우 다양하였다.

기타계열은 건축과 디자인학원, 다리여성복학원, 디지털 출판학원, 디지털디자인공정학원, 안동니패션과예술대학원, 예술과 건축학원, 예술과 미디어학원, 응용디자인학원, 정보과 미디어학원 내에 패션디자인학과, 패션소매업관리자, 편직기술 패션과, 패션경영, 패션디자인 공정과, 편직패션디자인학과가 있었다.

〈표 3〉 중국 패션 관련 학과의 소속 계열 및 명칭

계열	단과대학 및 학부명	학과명	대학교명	학교 수
경공업 계열	경공학원	패션디자인과	온주직업기술대	1
	경화학공업과 예술학원	패션공정과	안휘농업대	1
계				2(1.7)
방직 계열	방직과 예술디자인학원	패션디자인 경영과	가흥직업기술대	1
		패션디자인 공정과	가흥직업기술대	1
	방직과 의류공정대학원	패션디자인공정과	소주대	1
	방직의류(패션)학원	방직의류예술디자인과	강남대	1
		패션디자인 공정과	오이대, 장춘공업대, 신강대, 안휘공정대, 남통대, 소흥대, 서남대	7
		패션디자인표현과	강남대	1
		패션예술디자인과	강남대	1
	패션방직공정학원	패션디자인과 제작전공	남통대, 소흥대, 안휘공정대	3
		패션패턴 공예전공	위방공상직업대	1
		패션표현전공	위방공상직업대	1
	계			
예술 계열	공예미술학원	패션디자인과	태산직업대학, 하북대학	2
	디자인학원	디자인공정과	가흥대학	1
		패션디자인학과	길림예술학원	1
	미술디자인학원	패션디자인 공정과	온주대	1
		패션디자인학과	온주대	1
	미술예술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상해SIBO직업기술대	1
	미술학원	예술디자인과	청화대	1
		직물염색예술패션과	청화대	1
		패션디자인학과	동북사범대, 연변대	2
	상업미술학원	패션디자인학과	북건상업고등전문대	1
	예술공정학원	예술디자인과	천진경공직업기술대	1
		패션디자인학과	광시영화국제직업대, 남녕직업대	2
	예술디자인학원	패션공예기술과	위해직업대	1
		패션디자인공예과	연태직업대	1
		패션디자인 공정과	남창대 공청학원, 남통대 행림학원	2
		패션디자인학과	금화직업기술대, 무협상업직업기술대, 산둥청년정치대, 심주직업기술대, 위해직업대	5
	예술미술디자인학원	패션디자인 공정과	심수대	1
	예술학원	의류 및 패션디자인과	소주대 응용기술대학	1
패션디자인 공정과		금령과기대, 소주대 문정학원, 동북전력대, 화남농업대, 양주대	5	
패션디자인학과		광주SHEWAI경제 직업대, 내강직업기술대, 내몽골 상무직업대,	7	

한국과 중국 패션 전문 교육 현황 연구

		소주대 문정학원, 일조직업대, 중경항공직업기술대, 호남과기대		
계				38(31.7)
패션계열	예술과 패션학원	패션디자인 공정과	천진공업대	1
		패션표현과 기획과	천진공업대	1
	패션공정학원	패션디자인 공정과	소주공예미술직업대	1
		패션디자인학과	소주공예미술직업대	1
		편직물디자인과	소주공예미술직업대	1
	패션디자인학원	니트패션디자인과	무한과기대	1
		방직품, 섬유예술 디자인과	남경예술대	1
		패션디자인마케팅과	무한과기대	1
		패션디자인예술디자인과	무한과기대	1
		패션디자인패턴제작과	무한과기대	1
	패션미술디자인학과	방직품예술디자인전공	동화대	1
		패션예술디자인전공	동화대	1
		패션표현디자인전공	동화대	1
		패션디자인 공정과	동화대	1
	패션예술과공정학원	글로벌패션경영전공	북경복장대	1
		방직품예술디자인전공	북경복장대	1
		패션예술디자인과	북경복장대	1
		편물디자인전공	북경복장대	1
		패션디자인 공정과	북경복장대, 창수이공대	2
		패션디자인학과	창수이공대	1
	패션예술디자인학원	패션디자인 공정과	하원직업대	1
		패션디자인표현과	서안공정과기대, 하원직업대	2
		패션디자인학과	류저우직업대, 하원직업대, 호북미술학원	3
	패션예술학원	패션디자인학과	광주과기무역직업대	1
	패션학원	패션디자인전공	상해공정기술대	1
		패션표현기획전공	상해공정기술대	1
		패션공정관리과	산동패션직업대	1
		패션디자인 경영과	광주남양이공직업대	1
		패션디자인 공정과	광주남양이공직업대	1
		염색방직과	혜주대	1
패션디자인 공정과		청도방직고등전업학교, 상해공정기술대	2	
패션교육과		혜주대	1	
패션무역과 경영과		혜주대	1	
예술디자인전공		청도방직고등전업학교	1	
패션공정과		혜주대	1	
패션예술디자인과		혜주대	1	
패션CAD/CAM전공		상해공정기술대	1	

		패션디자인표현과	산동패션직업대	1
		패션디자인학과	산동공예미술대	1
		패션시장경영전공	상해공정기술대	1
계				45(37.5)
기타 계열	건축과 디자인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장춘공정학원, 대련이공대	2
	다리어성복학원	패션디자인학과	항주직업대	1
		패션소매업관리자	항주직업대	1
		편직기술 패션과	항주직업대	1
	디지털 출판학원	패션디자인학과	길림성경제관리간부대	1
	디지털디자인공정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조산직업대	1
	안동니패션과예술대학원	패션경영과	헤주경제직업기술대	1
		패션디자인 공정과	헤주경제직업기술대	1
		편직패션디자인과	헤주경제직업기술대	1
	예술과 건축학원	패션디자인학과	광서경모직업기술대, 산동 상업직업기술대	2
	예술과 미디어학원	패션디자인학과	광둥여자직업대	1
	응용디자인학원	패션디자인학과	광둥여자직업대, 중경재정직업대	2
	정보과 미디어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소양직업기술대	1
계				16(13.3)
총계				120(100)

단과대학 계열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였으나 학과 명칭의 경우는 '패션디자인학과'가 주를 이루고 '편직', '경영', '소매업관리' 명칭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과대학내에 패션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과들이 함께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중국의 소주대학, 강남대학, 청도대학, 운주대학, 헤주대학, 상해공정기술대학, 소흥대학, 북경복장학원, 동화대학과 같은 경우는 단과대학내에 패션 관련 학과만이 있어 한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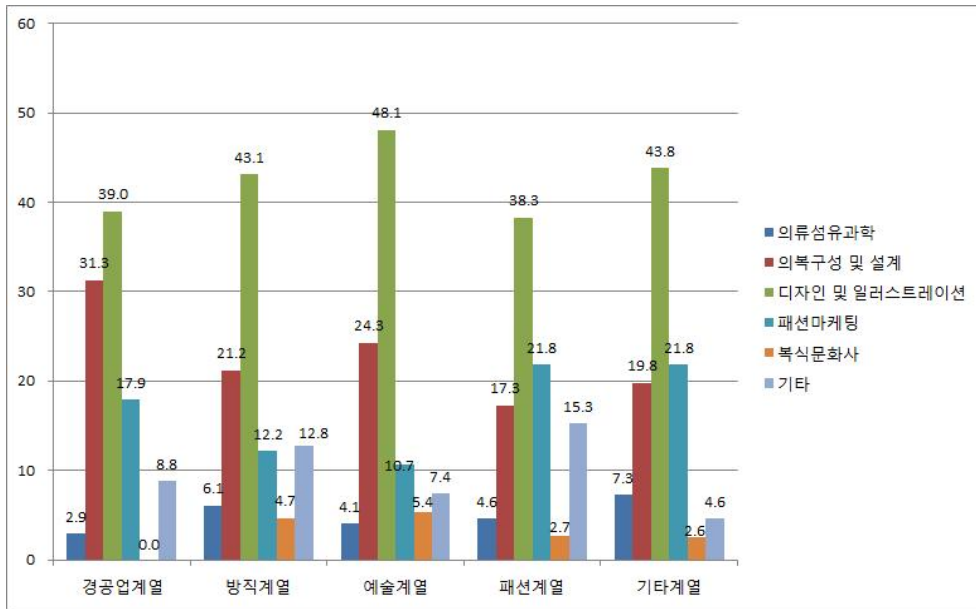
3) 계열별 교과과정 분석

계열별 교과목 현황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이 경공업계열의 경우,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과목이 39.0%,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31.3%, 패션마케팅 과목이 17.9% 순으로 되어 있으며, 방직계열의 경우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과목이 43.1%,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21.2%, 기타과목이 12.8% 순으로 되

어 있었다. 예술계열의 경우는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 과목이 48.1%,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24.3%, 패션마케팅 과목이 10.7% 순으로, 패션계열은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과목이 38.3%, 패션마케팅 과목이 21.8%,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17.3% 순으로, 기타계열은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 과목이 43.8%, 패션마케팅 과목이 21.8%,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19.8%로 나타났다.

계열에 따라 교과목 비중이 다름을 알 수 있었으며, 경공업계열의 경우는 디자인과목과 의복구성과목이 39.0%와 31.3%로 7.7% 차이를 보이지만, 방직계열의 경우는 43.1%와 21.2%, 예술계열은 48.1%와 24.3%, 패션계열은 38.3%와 17.3%, 기타계열은 43.8%와 19.8%로 방직계열은 21.9%, 예술계열은 23.8%, 패션계열은 21.0%, 기타계열은 24.0%의 차이로 20.0% 이상의 비중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목별 차이를 보면, 모든 계열에서 디자인과목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경공업계열, 방직계열, 예술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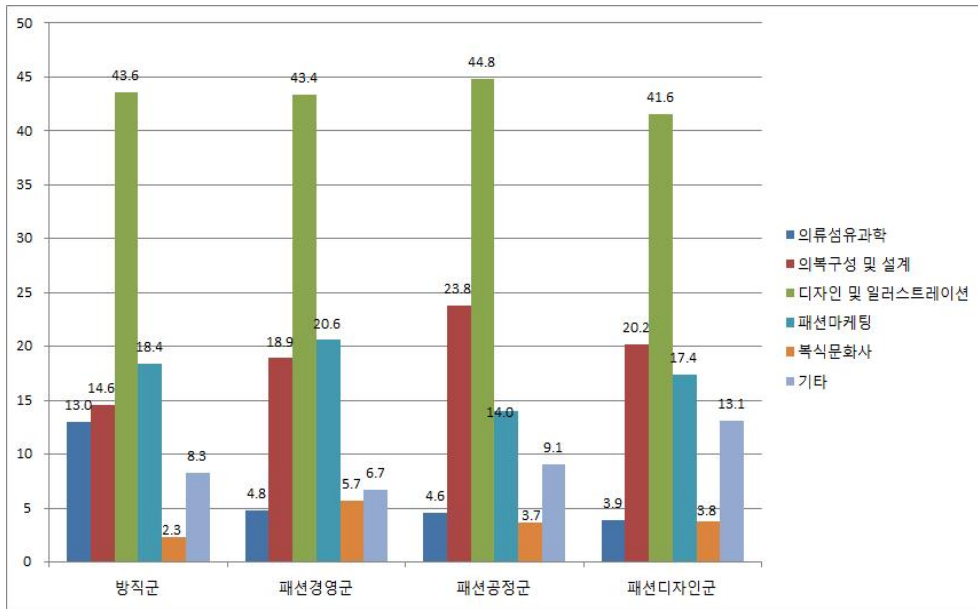
〈그림 4〉 2014년도 중국 패션 관련 학과의 계열 별 교과목 현황

열은 의복구성 및 설계과목이, 패션계열과 기타계열은 패션마케팅과목의 비중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예술계열은 의류섬유과학과목이, 경공업계열, 방직계열, 패션계열, 기타계열은 복식문화사 과목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구성 및 설계 과목의 경우 경공업계열에서는 31.3%로 비중이 높고, 의류섬유과학과목의 경우는 기타계가 7.3%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계열에서 2.9%, 6.1%, 4.1%, 4.6% 등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복식문화사 역시 예술계열에서 5.4%로 가장 높았으나 경공업계열 0.0%, 방직계열 4.7%, 패션계열 2.7%, 기타계열 2.6%로 낮은 비중을 보여 주었다. 패션마케팅과목의 경우는 다양한 비중을 보여주었는데, 패션계열과 기타계열은 21.8%, 경공업계열은 17.9%, 방직계열과 예술계열은 12.2%와 10.7%로 계열별로 차이가 있었다. 기타과목 역시 패션계열은 15.3%, 방직계열은 12.8%, 경공업계열은 8.8%, 예술계열은 7.4%, 기타계열은 4.6%로 계열별 비중이 작게 차이 남을 알 수 있었다.

4) 학과 군 별 교과과정 분석

중국 패션 관련 학과의 학과 군은 방직군, 패션경영군, 패션공정군, 패션디자인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총 120개 전공에서 방직군은 11개로 9.2%, 패션경영군은 10개로 8.3%, 패션공정군은 37개로 30.8%, 패션디자인군은 62개로 51.7%로 나타났다.

〈그림 5〉와 같이 학과 군 별 교과목 현황을 보면, 디자인 관련 과목이 43.6%, 43.4%, 44.8%,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직군의 경우는 패션마케팅 18.4%, 의복구성 및 설계 14.6%, 의류섬유과학 13.0% 순으로 나타났으며, 패션경영군의 경우 패션마케팅 20.6%, 의복구성 및 설계 18.9% 순으로, 패션공정군은 의복구성 및 설계 23.8%, 패션마케팅 14.0%, 기타 9.1% 순으로, 패션디자인군은 의복구성 및 설계 20.2%, 패션마케팅 17.4%, 기타 13.1% 순으로 확인되었다. 패션공정군은 의복구성과 디자인과목의 차이가 9.8%, 패션디자인군은 2.8%로 비중의 차이를 보이지만 유사한 교과목 비중의 형태를 보였다. 패션경영군의 경우 패션마케팅이 20.6%로 의복구성과목 18.9%보다 1.7%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의류섬유과학,



〈그림 5〉 2014년도 중국 패션 관련 학과의 학과 군 별 교과목 현황

복식문화사, 기타과목 등과의 비중이 10.0% 이상 나타나, 마케팅과 의복구성, 디자인 위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특징을 보였다. 방직군의 경우 의류섬유과 학과목이 13.0%로 다른 군에 비해 많은 비중을 보이는 특징이 있었다.

각 대학의 교과과정은 소속 대학 성격에 의한 것 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에 의한 필요 과목에 의한 설정 및 흡수 통합하기 전에 소속된 대학의 영향이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앙공예예술학원은 청화대학으로 흡수되기 전에 미술대학의 성격이 있어 염색 및 염직에 관한 교과목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도 교과목이 패션에 관련된 교과목 보다는 염색 및 염직에 관한 교과목이 많이 개설 되어 있다. 강서복장학원도 예술대학에 속해 있지만 지역적으로 패션 관련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므로 패션무역 분야의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도 이전 보다는 패션마케팅의 과목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생산 기술교육 보다는 미국의 패션교육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IV. 결론 및 제언

한국 패션 관련 대학의 학과명은 의류, 패션디자인, 의상디자인, 의상, 의류상품학, 의류패션, 섬유패션디자인 등 더욱 세분화되고 특징적인 학과명으로 세분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타융합계열에 소속된 학과들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현재 많은 대학들의 학과별 통폐합을 통한 단과대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과목의 경우, 2008년도의 연구에서 비교적 의상디자인, 의복구성, 마케팅, 복식문화 등 과목경계가 확실했던 것과 달리, 학과 군에 따른 특징은 유지하지만 현장교육 실습과목, 통합적 실무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설계과목 등의 편성으로 인한 기타과목 구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실무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과 최근 대학 평가의 기준이 되는 취업율을 높이기 위한 산학협력의 중요도 증가를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한국 패션 교육은 다양한 학과명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교과과정의 차이를 두면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영주 외²¹⁾

의 연구발표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은 학교별 특성이 있는 커리큘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으며, 분야에 따라서는 언어, 창의력, 컴퓨터프로그램 활용력, 실무에 필요한 전문분야 지식 등 현장에서 원하는 교육방향에 차이를 보였다.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디자인과 의복구성을 모든 대학이 차이 없이 교육하는 교과과정은 지양되어야 하며 교과과정에 있어서도 이론과 실무의 성격을 나누어 생각하고, 실무교과의 경우 분야 별 전문가와 연계된 교과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패션대학의 분석을 위해 계열은 경공업계열, 방직계열, 예술계열, 패션계열, 기타계열로, 학과 군은 방직군, 패션경영군, 패션공정군, 패션디자인군으로 나누었다.

중국 패션대학의 학과명은 계열과 학과 군에 상관 없이 디자인학과가 가장 많았고 '경영, 공정, 표현, 예술' 등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단과대학 내에 패션 관련 여러 학과만 있는 대학도 있어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패션디자인군과 다른 군 사이에 디자인과목의 비중 차이가 보였는데, 중국은 모든 계열, 모든 학과 군에서 디자인과목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디자인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운영됨을 알 수 있었다. 중국 패션대학의 교과과정은 소속 대학 성격에 의한 것 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에 의한 필요 과목에 의한 설정 및 흡수 통합되기 전에 소속된 대학의 소속에 의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청화대학으로 흡수되기 전 중앙공예 예술학원으로 되어 있어 염색 및 염직에 관한 교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예술대학에 속해 있는 강서복장학원도 예술대학에 속해 있지만 지역적으로 패션 관련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므로 패션무역 분야의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패션마케팅의 과목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생산 기술교육 보다는 미국의 패션교육 체제에로 전환되고 있음이 시사되는 부분이다.

현재의 산업은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중국은 부유층 10.0%가 전체 국민의 63.9%를 차지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하고²²⁾ 부유층 인구가 이미 1억 2000만 명에 달하

는 유일한 거대부유층 인구를 보유한 신흥시장이다. 이들의 소비성향은 제품 구매에 있어 글로벌 유행에 민감하며 빠르게 받아들이고 인터넷 상품 구매의 특징을 보인다.²³⁾ 이런 부유층의 소비는 중국소비를 40.0% 증가시킬 것이며, 비중은 2011년 24.0%에서 2020년 3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중국패션산업 현황에서 중국패션교육 역시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대학의 교과과정이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개설된 점을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의 방대한 국토로 인한 지역적 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교과과정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글로벌한 교과과정 및 지역의 방향성에 대하여 먼저 설계하고 지역 패션업체와 현업을 폐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 패션대학은 홈페이지에 학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연구에 제한점이 있었으며 한국과 중국의 교과과정을 비교함에 있어서 양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나, 본 연구는 중국의 패션학과 관련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어패럴뉴스편집부 편 (2012), *2012/2013 한국패션브랜드연감*, 서울: 어패럴뉴스, p. 4.
- 2) 여월 (2011), 중국의 패션산업 및 교육 현황: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이후를 중심으로, *패션정보와 기술*, (8), pp. 19-34.
- 3) 이해영, 이진희 (1991), 우리나라 의류 관련학과 대학 교과과정에 관한 조사연구: 의복구설계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논문집*, 10(1), pp. 197-204.
- 4) 김소현 (1996), 이태리 패션교육에 관한 고찰, *복식*, (28), pp. 147-161.
- 5) 구양숙 외 (1999), 4년제 대학의 패션 관련 학과 교과과정 비교 분석: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홍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1), pp. 19-32.
- 6) 김효은 (1999), 전문대학 패션디자인과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복식*, (46), pp. 89-107.
- 7) 이호정 (2005), 패션산업의 글로벌화 대응을 위한 패션 전문인력 육성방안,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5), pp. 463-466.
- 8) 나수임, 권혜숙, 이정순 (2008), 패션 관련 학과의 전공 교과과정 현황분석, *패션비즈니스학회지*, 12(5), pp.

- 54-66.
- 9) 나영주 외 (2010), 글로벌 섬유패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패션전문인 양성을 위한 제언,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 3-24.
 - 10) 김은애 외 (2011), 패션산업 인력배출 현황 조사사업,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pp. 67-89.
 - 11) 동성천 (2004), 중국 국·공립대학 복장계열 학과의 현황,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1), pp. 5-8.
 - 12) 여월, *op. cit.*, pp. 19-34.
 - 13) 중국 고등 교육 학생 정보 사이트, 자료검색일 2012. 12-2013. 7, <http://gaokao.chsi.com.cn/sch/info/search-year-2012,ss-on,option-qg,searchType-1.dhtml>.
 - 14) 대학교육연구소 (2013), *대학교연 통계(기본) 1호*, 서울: 대학교육연구소, pp. 1-8.
 - 15) 교육통계서비스, 자료검색일 2014. 3. 7, <http://kess.kedi.re.kr/index>
 - 16) 이호정, *op. cit.*, p. 463.
 - 17) 나수임, 권혜숙, 이정순, *op. cit.*, p. 61.
 - 18) *Ibid.*, p. 62.
 - 19) *Ibid.*, p. 63.
 - 20) 동성천, *op. cit.*, pp. 5-6.
 - 21) 나영주 외 (2010), *op. cit.*, pp. 3-24.
 - 22) 홍순도, "중국 빈부격차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만큼 심각", 자료검색일, 2014. 3. 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223010004936>
 - 23) 최현진, "중국 부유층 소비자 분석", 자료검색일 2014. 3. 7,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ARTICLE_ID=5010847&BBS_ID=10